

'체육 강도 전복' 회복 대책 제안

박정규 도의원, 우수선수 영입·복지포인트 조속 지급 등 5대 처우 개선 방안 촉구
"도내 선수들이 운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이 전복 체육 부활 이끄는 진짜 투자"

전북특별자치도내 직강운동경기부 선수들이 타 시도보다 열악한 처우를 받고 있어 경기력 향상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박정규 의원(입실, 문화안전소방위원회)은 도의회 제418회 임시회에서 2036년 하계올림픽 유치에 추진 중인 전복 체육 강도의 명성을 되찾기 위해선 선수들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복은 한때 전국체전 3위권을 기록할 정도의 체육 강도였지만, 최근 대회에선 14위권에 머물며 성적이 크게 하락했다. 박 의원은 그 원인으로 직강운동경기부 선수에 대한 낮은 연봉과 복지 수준을 꼽았다.



박 의원이 제안한 5대 처우 개선 방안으로 우수선수 영입 및 유출 방지, 복지포인트 조속 지급, 팀 운영비 현실화, 통합숙소 및 훈련시설 구축, 선수 은퇴 후 진로 설계 지원 등이 있다.

우수선수 영입비 하한 금액도 전북자치도는 2,000만원 이하로 정하고 있는데, 서울특별시의 4,000만원 미만인 기준과 비교하면 상황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복지포인트 조속 지급과 관련, 지난해 예산에 편성됐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조례 미비를 이유로 지급이 보류 중인 상황으로 박 의원은 "다른 시도들도 조례 없이 지급 중"이라며 지급 재개를 촉구했다.

팀 운영비 현실화와 관련, 현재 1인당 월 20만원 수준의 운영비로는 차량 운영, 식비, 간식비 충당이 어렵다며, 최소 타 지자체 평균 수준으로 인상할 것을 요구했다.

통합숙소 및 훈련시설 구축과 관련,

현재 대부분 외부 학교 시설을 빌려 훈련하고 있으며, 컬링팀은 도내 전용 경기장이 없어 타 지역을 오가는 실정. 통합 훈련장과 숙소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선수 은퇴 후 진로 설계 지원과 관련해 박 의원은 대한체육회 자료에 따르면 선수 평균 은퇴 나이는 23세, 그중 40%는 무직 상태. 지도자 전환 및 공무원 채용 연계 등의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홍보도 중요하지만, 열악한 환경에서도 묵묵히 훈련 중인 선수들이 최우선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선수들이 마음껏 운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이야말로 전복 체육의 부활을 이끄는 진짜 투자"라고 말했다.

한편, 전북자치도는 이번 추경예산안에 94억원 규모의 올림픽 홍보비를 포함시켰다. /이만호 기자

"용담검무 등 무예 자산 뿌리내려진 전북 K-전통무예 중심지 도약 잠재력 충분"

임종명 도의원, 전북형 전통무예 진흥 전략 수립 촉구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임종명 의원(남원2)은 23일 열린 제418회 임시회 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전북자치도를 K-전통무예 중심지로 육성하기 위한 전북형 전통무예진흥 전략 수립 마련을 촉구했다.



는 전략 산업으로서의 가치가 크다는 것이다.

전북자치도가 전통무예 성지 조성을 하기 위해서는 전통무예 유산을 연구·보존하고 체험하고 배울 수 있는 교육공간 조성, 전시·공연 체험 등이 결합된 복합 문화관광지로 발전시켜야 한다는 게 임 의원의 주장이다.

특히 그는 "2036년 하계올림픽 유치를 준비하는 현재점에서 전북자치도의 스포츠 브랜드로써 무예는 경쟁력 있는 콘텐츠라며, "교통 접근성과 국제행사기반시설을 고루 갖춘 새만금 세계잼버리 대회 부지를 전통무예진흥원으로 조성한다면, 전통무예진흥원과 지역 균형발전이라는 두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종명 의원은 "전북자치도는 태권도, 택견, 국궁, 씨름 등 우리 민족의 전통무예는 물론, 남원시 무형문화유산인 용담검무 등 다양한 무예 자산이 뿌리내려 있다"면서, "전북자치도는 그동안 축적된 무예 유산과 문화 기반을 바탕으로 K-무예의 수도, 세계 무예의 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는 충분한 잠재력을 갖추고 있다"고 말했다.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세계 무예산업 규모는 약 552조원에 달하며, 전 세계적으로 10억명 이상의 수련 인구가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이러한 시장 잠재력을 고려할 때, 전통무예 산업은 문화와 관광, 음식 등 지역경제를 아우르

는 것으로 임 의원은 "전통무예 성지 조성은 단순한 체육 인프라 구축을 넘어 무예 산업뿐 아니라 숙박, 관광 등 지역상권 전반에 활력을 불어 넣고 고용창출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전북특별자치도가 타당성 조사와 기본계획 수립을 선제적으로 추진해줄 것"을 촉구했다. /이만호 기자

MLB, 레이스 트랙서 특별경기

메이저리그(MLB)가 역대 한 경기 최다 관중 기록 경신을 노린다.

MLB는 8월3일(한국 시간) 15만명 이상의 관중을 수용할 수 있는 미국 테네시주 브리스톨 모터 스피드웨이에서 애틀랜타 브레이브스와 신시내티 레즈의 경기를 개최한다.

로 맨프레드 MLB 커미셔너는 23일 CAA 세계 스포츠 대회에서 해당 경기를 소개하며 "엄청나게 많은 관중을 모을 수 있을 것"이라며 "이 경기는 많은 관중이 MLB 경기를 즐길 수 있는 기회"라고 소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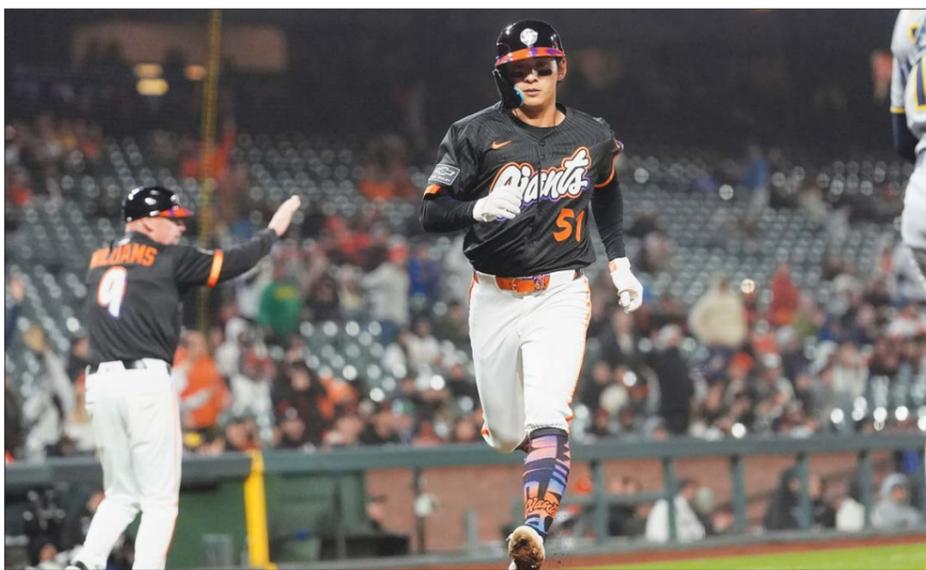
브리스톨 모터 스피드웨이는 미국 자동차 경주대회 나스카(NASCAR) 레이스 트랙이다. 이곳에서는 이전에도 스포츠 경기가 열린 적이 있다.

2016년 미국대학스포츠협회(NCAA) 미식축구 테네시 대학과 버지니아 공대의 경기가 열렸는데, 15만6990명의 관중을 불러모았다.

MLB는 이곳에서 한 경기 최다 관중 신기록을 기대한다.

MLB 역대 한 경기 최다 관중 신기록은 2008년 LA 다저스와 보스턴 레드삭스의 시범경기에서 작성한 11만 5300명이다. 당시 다저스는 두 차례 올림픽 개최지로서 사용한 로스앤젤레스 메모리얼 콜리세움에서 경기를 펼쳤다. 오는 8월 3일 열리는 애틀랜타-신시내티전에서 기록이 17년 만에 깨질 가능성이 있다.

MLB는 1989년 개봉한 영화 '꿈의 구장'을 현실로 재연하고자 2021년 미국 아이오와주 다이어스빌 육수수발에 임시 경기장을 세워 경기를 치르기도 했다. /뉴시스



볼넷 진루 후 득점하는 이정후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의 이정후가 22일(현지 시간) 미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의 오라를 파크에서 열린 2025 메이저리그 밀워키 브루어스와의 경기 8회 말 볼넷으로 진루한 후 득점하고 있다. 이정후는 4타수 무안타 1볼넷 1득점을 기록했고 샌프란시스코는 3-11로 패했다.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의 이정후가 22일(현지 시간) 미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의 오라를 파크에서 열린 2025 메이저리그 밀워키 브루어스와의 경기 8회 말 볼넷으로 진루한 후 득점하고 있다. 이정후는 4타수 무안타 1볼넷 1득점을 기록했고 샌프란시스코는 3-11로 패했다.

'프로야구와 캐릭터 콜라보는 계속'

KIA는 티니핑, 롯데는 피카츄와 협업

프로야구의 인기 상승과 더불어 젊은 팬층을 공략하기 위한 캐릭터 협업이 이어지고 있다.

KIA 타이거즈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SAMG엔터의 인기 지적재산권(IP)인 '캐치! 티니핑'과 협업을 진행한다

고 23일 밝혔다. 이에 KIA는 어센틱 유니폼은 물론 랜덤 피규어 키링, 직관 가방 등 17종에 이르는 콜라보 상품을 출시할 예정이다. 해당 상품은 올 시즌 온·오프라인 팀스토어를 통해 구매

할 수 있다. 이날 롯데 자이언츠도 인기 콘텐츠 '포켓몬'과의 협업 계획을 발표했다. 롯데는 포켓몬 캐릭터 '피카츄'를 중심으로 다양한 형태의 굿즈를 기획했다. 의류, 응원용품, 기념 아이템까지 아우르는 상품을 선보일 예정이다. 구단은 이번 협업을 통해 사자야구장 포켓몬 퍼레이드, 전시, 포토존 등 팬들에게 즐거움을 줄 수 있는 프로모션도 함께 선보일 예정이다. /뉴시스

조던, 역대 선수 수입 1위

우즈 2위 · 호날두는 3위

'농구 황제' 마이클 조던(미국)이 역대 스포츠 선수 중 가장 많은 수입을 올린 거로 확인됐다.

미국 매체 '스포티코'는 23일(한국 시간) "스포츠 선수 역사상 가장 많은 수입을 올린 50인"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했다.

매체에 따르면 조던은 무려 30억 달러(약 4조2678억원)를 벌여 압도적인 1위를 차지했다.

스포티코는 물가 상승률을 반영한 금액도 공개했는데, 이를 감안한 조던의 수익은 41억5000만 달러(약 5조 9071억원)였다.

조던 외에도 각 분야에서 내로라하는 전설들이 대거 포함됐다.

2위는 '골프 황제' 타이거 우즈(미국)의 뒤이었다. 우즈는 19억1000만 달러(약 2조7179억원)를 벌 거로 조사됐다.

3위에는 '축구 스타' 크리스티아누 호날두(포르투갈·알 나스르)가 자리



했다. 매체는 호날두가 18억3000만 달러(약 2조6040억원)를 벌었다고 알렸다.

호날두는 리오넬 메시(아르헨티나·인터 마이애미)와 라이벌로 평가받는데, 이 부문에선 우위를 점했다.

메시는 14억9000만 달러(약 2조1205억원)로 5위에 올랐다.

호날두와 메시 사이에는 미국프로농구(NBA) 스타 르브론 제임스(미국·LA레이커스)가 14억9000만 달러(약 2조1205억원)를 벌여 4위에 자리했다.

르브론과 메시는 번 금액은 같지만, 물가 상승률 반영 금액에서 순위가 같린 거로 보인다. 르브론은 18억8000만 달러(약 2조6763억원)며, 메시는 18억 5000만 달러(약 2조6337억원)로 계산됐다. /뉴시스

